

보도시점 2026. 10. 18.(일) 11:00 배포 2026. 10. 18.(일) 09:00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주요국 수석대표 및 다자개발은행 총재 등 주요 인사 면담 결과

- 이 부총리, 10.16일(금)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미국·스위스·사우디·폴란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총재 등 총 11회 면담
- 주요국·신용평가사 등은 최근 괄목할 만한 한국경제 성장흐름과 재정여력 확충, 양극화 완화 방안 등에 큰 관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하 이 부총리)은 10.16(금) 태국 방콕(Bangkok)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세계은행(World Bank) 연차 총회 계기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및 주요 다자개발은행 총재, 미국·사우디아라비아·스위스·폴란드 등 다수 국가·기관들과 면담했다.

【 ①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등 면담 결과 】

이 부총리는 무디스(Moody's), 피치(Fitch), 스탠더드앤amp;푸어스(S&P)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이하 '신평가사') 총괄*과 연이어 면담하여 최근 괄목할 만한 한국경제 성과를 소개했다.

* (무디스) 마리 디론(Marie Diron) (피치) 제임스 롱스던(James Longsdon)
(S&P) 로베르토 시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

이 부총리는 반도체 수출 호황 및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올해 3%대 성장이 예상되며, 중장기적 성장추세도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7대 Seed 육성, K-GX(한국 녹색 대전환) 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초로서 양극화 완화를 강조하며, 한국 정부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세대·자산·소득·지역 등 여러 분야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 중이며, 특히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K-뉴딜 아카데미’ 등 주요 정책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신평사들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미래대응기금 등 추가세수 활용방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부총리는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통해 대규모 여유 재원을 축적해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금년 초과 세수를 국고채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하는 등 국채 시장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평사들은 반도체·AI 호황이 고령화, 중동전쟁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성장 둔화 우려를 상쇄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성장, 재정건전성, 대외 관련 지표가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국가 신용등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이어, 이 부총리는 발레리 위흐뱅(Valérie Urbain) 유로클리어 그룹*(Euroclear Group) CEO와 면담을 가졌다.

*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의 거래 후 결제·보관을 담당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증권예탁결제기구(본부: 벨기에 브뤼셀 소재)

이 부총리는 ‘24.6월 유로클리어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국채통합계좌를 개설하여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WGBI) 편입을 지원한 것에 사의를 표했고, 유로클리어는 한국을 자본시장 개방 및 선진화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국고채의 담보활용 확대와 원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 ②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총재 면담 결과 】

이 부총리는 이날 오딜 르노-바소(Odile Renaud-Basso)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총재 및 히셀라 산체스(Gisela Sánchez) 중미경제통합은행(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CABEI) 총재와 각각 면담을 갖고, 한국 내 각 은행의 AI 협력거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기술력과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의 개발 협력 역량을 결합, 개도국의 AI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AI 허브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이 부총리는 EBRD 르노-바소 총재와 AI 허브 설립 및 협력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AI 허브가 EBRD의 AI 관련 사업을 발굴·연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르노-바소 총재는 한국이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EBRD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한-EBRD 양측은 에너지·원전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르노-바소 총재는 원전 안전을 비롯한 다양한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히 한국의 소형모듈원전(SMR)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향후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이 부총리도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이 EBRD의 에너지·원전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CABEI 산체스 총재와 만나 한-CABEI AI·디지털전환센터(CADT) 설치를 위한 MOU와 CABEI 한국사무소 설립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설립협정은 기존에 운영 중인 CABEI 한국사무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중미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부총리는 양측의 역량을 활용한 실질적인 AI 협력사업 발굴을 당부했으며, 산체스 총재도 이를 통한 한국 기업의 중미 지역 진출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면담한 ADB, EBRD, CABEI 등 3개 다자개발은행(MDB)에 우수한 한국 인력의 진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각 기관 총재들도 이에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 ③ 주요국 양자 면담 결과 】

이 부총리는 미국 재무부 장관 및 한미 재무·통화당국 2+2 면담, 스위스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폴란드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가졌다.

이 부총리는 한미 재무·통화당국간 2+2 면담 직후 프랜시스 브룩(Francis Brooke) 미국 재무부 장관과 양자 면담하여 한미 양국간 경제·금융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앞으로 양국 재무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기 파믈랭(Guy Parmelin) 스위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스위스측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한-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경제 관계의 안정적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AI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AI 및 R&D, 바이오 기술 등 첨단 혁신 분야에서 양국의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스위스의 외환 정책과 글로벌 불확실성 속 스위스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Mohammed bin Abdullah Al-Jadaan)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에너지·방산·인프라 및 국부펀드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전략산업 및 해외 공급망 기업 투자 등을 위한 ‘전략형 국부펀드’ 신설 계획을 소개하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IF(Public Investment Fund)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총리는 금년도 주요 20개국(G20) 초청국인 폴란드의 안제이 도만스키(Andrzej Domański) 재무장관과 만나 방산 분야 및 주요 20개국(G20)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폴란드가 올해 최초로 주요 20개국(G20)에 초청되어 글로벌 경제 현안 논의에 기여한 점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한국과 폴란드가 대규모 방산 협력을 이어오고 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책임자	과 장 이운호 (044-215-4810)
		담당자	사무관 송기선 (steamship@korea.kr)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피재원 (jwphi@korea.kr)
		책임자	과 장 황희정 (044-215-4710)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원종혁 (gur2794@korea.kr)
		책임자	과 장 심승현 (044-215-4830)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담당자	사무관 변재만 (byun221@korea.kr)
		책임자	과 장 곽소희 (044-215-8720)
	대외경제국 신통상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안영환 (ynghwn@korea.kr)
		책임자	과 장 최병석 (044-215-7650)
		담당자	사무관 강동근 (kdk212korea.kr)